

DaF-수업에서 의존문법의 이용가능성

- Kalevi Tarvainen의 이론을 중심으로 -

이점출(중앙대)

1. 서론

의존문법/결합가 이론은 문장성분들 사이의 지배와 의존 관계를 연구하는 문법이론으로서 1959년 Tesnière가 체계적으로 연구한 이후로 특히 독일, 동구 및 북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의존문법은 현재 독일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문법연구 방향 중의 하나이며, 독일어와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등의 대조문법 기술과 외국어 수업을 위한 응용언어학적인 연구에도 도입되었다. 동사가 문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의존문법은 동사를 문장의 구조적 중심으로 간주하며, 특히 어휘부를 강조하여 많은 결합가 사전이 편찬되었다. 독일의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특히 외국어 수업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발전한 의존문법을 우리도 역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Deutsch als Fremdsprache: DaF) 수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한독 대조문법 연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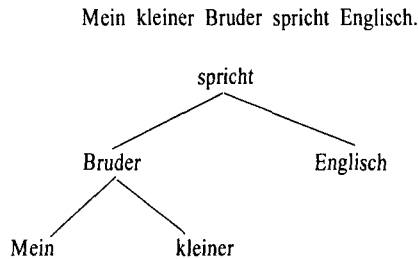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결합가 이론은 오늘날 문형 및 이를 토대로 한 결합가 사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형과 결합가 사전은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배우는 이들이 올바른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결합가 사전은 최초의 결합가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Helbig/Schenkel(1969)의 『독일어 동사의 결합가와 분포에 관한 사전』, Engel/Schumacher(1976)의 『독일어 동사의 결합가 소사전』(=KVL) 그리고 통사론 중심의 KVL과는 달리 의미론 중심으로 구성된 가장 방대한 Schumacher(1986)의 『동사장』(Verben in Feldern)이 대표적인 결합가 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과의 대조적인 결합가 사전도 다수 존재한다. 그밖에 일련의 대조문법서, 예컨대 Engel/ Mikic(1983)와 Engel/Mrazovic(1986)의 독일어-세르보크로아티아어 대조문법, Tarvainen(1985)의 독일어·핀란드어 대조문법, Stanescu(1988)와 Engel/Isbacescu(1993)의 독일어-루마니아어 대조문법서 등이 출간되었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독일학자이며 의존문법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Tarvainen은 Tesnière, Helbig, Engel, Fillmore 등의 이론을 종합하여 새로운 의존문법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독일어와 핀란드에 관한 방대한 대조문법서를 저술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Tarvainen의 의존문법을 대조문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의존문법의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DaF-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Tarvainen의 문형을 제시하여 독일어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의존문법의 기술방법을 우리 국어에 적용시켜, 국어의 통사 구조를 의존문법 이론으로 기술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의존문법의 유용한 기본 범주

원칙적으로 의존문법은 DaF-수업에서와 똑같이 모국어로서의 독일어(언어 전반의) 수업에서도 적합하다. 동사를 출발점으로 하는 계층적인 의존기술, 결합가, 문장의 보충어 구조와 첨가어 구조, 문장성분의 계열소 등 의존문법의 기본 범주들은 그 자체가 외국어 수업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의존문법은 문장의 수직적인 기술에서 몇몇 요소들에는 보다 상위의 위치가 할당되고, 그리고 몇몇 요소들에는 보다 하위의 위치가 할당되도록 요소들의 배열을 규정하는 계층적인 기술방법을 사용한다. 동사가 최상위에 위치한다. 다음 문장은 아래와 같은 의존배열을 나타낸다.



이러한 계층의 방향은 “결코 자연발생적이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언어에

의해 사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문법학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근거한다 (Engel 1982: 33). 의존 *Dependenz*은 오직 문법적인 기술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결합가 *Valenz*는 그렇지 않다. 결합가는 의미 보유어로서 사용되는 한 언어 요소의 내재적 자질이다. 결합가란 한 언어요소가 그 의미에 따라 특정한 형태와 내용의 보충어를 요구하는 능력을 말한다. 위의 문장에서 “말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spricht*는 주격 보충어 *mein Bruder*와 대격 보충어 *Englisch*를 요구한다. 의사소통에서는 결국 언어 내용이 문제되기 때문에, 결합가에 대한 이러한 의미적인 견해가 외국어 수업에서 아주 중요하다.

오늘날 이미 공인된 바와 같이 결합가는 동사뿐 아니라 특정한 형용사와 명사에도 부여될 수 있다(Sommerfeldt/Schreiber 1977; Engel 1982: 109; Tarvainen 1981: 2f.). 이것은 외국어 수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동일한 어족에서는 커다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원상 동일한 단어들을 결합가에 의해 결합된 그룹으로 학습하면 가장 효과적이다(Tarvainen 1983: 106).

danken Nom+Dat+für : Der Junge dankt dem Vater für das Geschenk.

Dank Gen+an+für : der Dank des Jungen an den Vater für das Geschenk

dankbar Dat+für : (Der Junge) ist dem Vater für das Geschenk dankbar.

이러한 동사, 명사, 형용사에 대한 결합가 중심적인 기술은 DaF-분야의 어휘수업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문장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합가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문장에서 무엇이 보충어이고 무엇이 첨가어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문장성분 *Satzglied*을 보충어 *Ergänzung*와 첨가어 *Angabe*로 나누는 것이 전체 의존문법과 외국어 수업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Engel(1982: 113)에 의하면, 보충어는 하위부류에 특수한 문장성분, 즉 “한 품사의 특정한 요소들에만 종속하는 문장성분이고”, 첨가어는 “한 품사의 모든 요소들에 종속한다.” *Ich warte am Bahnhof auf ihn.*라는 문장에서 *ich*와 *auf ihn*은 하위부류 특수적이며, 즉 주어와 전치사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들의 하위부류에 종속한다. 이에 반해, 요소 *am Bahnhof*는 이러한 동사들의 하위부류에 한정되지 않고, 예컨대 하위부류 “주어와 대격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

에서도 나타난다(Ich habe ihn am Bahnhof gesehen.). 상이한 결합가를 갖는 동사들에서 ‘추가 규정어’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임의첨가어다(Tarvainen 1981: 87; Helbig/Schenkel 1980: 31f.).

Engel에 의하면 위 문장의 이러한 세 가지 비 동사적인 요소들(ich, am Bahnhof, auf ihn) 중에서 ich는 의무적인 반면에, am Bahnhof와 auf ihn은 수의적이다. 수의성이란 대체로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예컨대 특정한 상황, 알려진 발화 맥락이나 특정한 통사적인 환경에서는) 고립된 문장에서 그 문장이 비문법적인 되지 않고서도 삭제될 수 있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 요구되는 보충어로 이해된다. 수의성이란 한 언어 요소에 종속하는 요소들이 한편으로는 전체 동사부류에 종속하며 하위부류 특수적인 아닌 첨가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사의 의미에 근거하지만 일부는 의무적인 obligatorisch(=고립된 문장에서 삭제될 수 없는), 일부는 수의적인 fakultativ(=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삭제될 수 있는) 하위부류 특수적인 보충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의성이 DaF-수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수의적 보충어는 동사의 하위부류에 특수한 환경에 속하며, 독일어 학습자는 이것을 의무적 보충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수의성은 언어체계 Sprachsystem에 속하지 않고 다만 문맥 제약적인 사용 Gebrauch에만 속하는 불필요한 범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독일어 동사들은 독일어 수업을 위해서 “의무적-수의적”이라는 개념 쌍을 필수적으로 만드는 형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be-, er- 등에 의한 접두사화의 가능성에 있는데, 이들은 가끔 의미가 유사한 두 동사들 중의 하나를 의무적 2가 동사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의무적 1가 동사가 될 수 있다. 의미가 유사한 두 동사 warten과 erwarten 중에서 warten에서는 목적어가 삭제될 수 있지만 erwarten에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Der Freund wartet auf uns.

Der Freund wartet.

Der Freund erwartet uns.

*Der Freund erwartet.

동사 warten은 “기다리다”라는 동사내용을 목표점이 없는 행위의 지속적인 상태로써, 즉 순수한 동사적 과정으로서 표현하고, erwarten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수의적 결합가는 독일어 학습자에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들은 자기 자신의 언어를 근거로 **Der Freund erwartet.*라고 말할 것이다. 상술한 내용은 의미가 유사한 다른 동사들에서도 적용된다.

Er antwortet (auf den Brief).

Er beantwortet den Brief.

*antworten*은 의무적 1가 동사이고, *beantworten*은 의무적 2가 동사이다. 두 동사의 전체 결합가 *Gesamtvalenz*는 2가이다(Tarvainen 1973: 17).

결합가 이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첨가어를 (수의적) 보충어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조작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이 문제가 실제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문제는 실제로 특정한 부사규정어에서만, 특히 방법규정어에서 나타나는데, 방법규정어에서는 임의첨가어를 수의적 보충어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Wir fangen die Sache geschickt an.*이라는 문장 안에 있는 형용사 *geschickt*가 Engel/ Schumacher의 결합가 사전에 따르면 보충어이지만, Helbig/Schenkel의 결합가 사전에서는 *anfangen*이 방법보충어를 갖지 않는다(Engel/Schumacher 1978: 121; Helbig/Schenkel 1980: 23). 목적어는 항상 보충어이기 때문에 목적어에서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전치사 목적어와 부사보충어의 구별에서는 가끔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는 바로 목적어가 그 특정한 형태 때문에 결합가에 결속된 부사규정어보다 학습하기가 훨씬 어렵다. 부사규정어의 형태는 동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부사규정어는 여러 언어들에 해당 동사의 결합가에서 차이가 별로 없다.

보충어에서는 문장성분의 명칭 *Bezeichnung*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Engel은 잘 고안된 E-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는 이 E-체계에서 E(=Ergänzung)에다 숫자 지표를 첨부하여 표기하며($E_0, E_1 \dots E_9$), 설명하기 위해서만 보충어의 완전한 명칭을 부여한다: E_0 =주격 보충어, E_1 =대격 보충어, E_3 =여격 보충어, E_4 =전치사 보충어, E_6 =방향보충어 등등(Engel 1982: 176f.; Engel/Schumacher 1978: 26,52f.). 여러 언어들에서의 보충어는 상이한 형태론적 체계로 인해 상호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대조문법에서는 이 약어가 사용될 수 없다. DaF-수업을 위

해서는 독일어 의존문법이 “주어”, “목적어” 등과 같은 국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러한 문장성분을 크게 보충어와 첨가어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체계가 가능하다(Tarvainen 1979; Tarvainen 1984).

보충어: 주어, 목적어, 부사보충어, 술어보충어

첨가어: 부사첨가어, 술어첨가어, 임의 여격

그러나 전통적인 명칭이 단지 그 명칭의 국제성 혹은 전통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E₁, E₂, E₃, E₄(대격/속격/여격/전치사 보충어)는 이들을 “목적어”라는 상위 개념 하에 총괄하고 하위종류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하지만 전통적인 개념인 “목적어”, “부사보충어” 등은 의존문법의 개념에 따라서 정의되어야 한다. 이들은 특히 여러 언어들에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의존문법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예로서 목적어와 부사보충어가 정의되며 독일어의 예문을 통해서 설명된다(Tarvainen 1986: 19f).

목적어(Object)는 술어동사에 의해 요구되는 보충어로서 그 형태, 예컨대 격이나 전치사 결합은 동사에 의해 결정되며, 해당 격을 갖는 대명사나 혹은 동일한 전치사 결합(독일어에서는 전치사적 부사도 가능)으로 대응화될 수 있다.

Mein Bruder schreibt *einen Brief* / IHN. (형태: 대격)

Ich denke *an die Arbeit* / DARAN. (형태: an + 대격)

an die Frau / AN SIE.

부사보충어(Adverbialergänzung)는 술어동사에 의해 요구되는 보충어로서, 그 형태는 일차적으로 동사가 아니라 구(보충어) 자체의 의미에 의해 결정되며 부사로 대응화될 수 있다.

Er fährt *an den Rhein / nach Deutschland / aufs Land* - DORTHIN.

이러한 “목적어-부사보충어”의 원칙이 형용사와 명사의 보충어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언어 경계를 넘어서서 관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외국어 수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Tarvainen 1981: 74ff., 80f.).

형용사의 목적어 : *der Ruhe* / DEREN bedürftig (형태: 속격)

형용사의 부사보충어 : Er ist *in München* / *an diesem Ort* - DORT - ansässig.

목적어와 유사한 부가어 : *das Gespräch über die Urlaubsreise* / DARÜBER

부사와 유사한 부가어 : *eine Reise nach Italien* / *in die Stadt* / *aufs Land* - DORTHIN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의존문법의 기본범주에 관련된다. 다음에서는 특수한 소위 상관사 *Korrelat*/형식어 *Formwort*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다시 말해서, 독일어에서는 가끔 대명사 *es*나 대명사적 부사가 의무적으로나 혹은 수의적으로 목적어 기능을 하는 부정사나 부문장을 지시한다. 그것은 순수 형식적인 문장성분의 요소로서, 동사의 격지배를 충족시키고 결합가 문법에서 상관사나 형식어로 표현된다(Tarvainen 1973: 43; 1981: 71).

Ich schaffe *es*, die Arbeit zu beenden.

Der Lehrer achtet *darauf*, verständlich zu sprechen.

Alle haben (*es*) gesehen, dass er krank war.

Ich bereite mich *darauf* vor, dass er kommt.

Er fragte (*danach*), ob er kommen soll.

이러한 경우에서 부정사와 부문장이 단독으로 등장할 수 있는 지, 혹은 보충어로서 수의적 상관사 혹은 의무적 상관사와 함께 등장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외국인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두 동사결합가 사전(Engel/Schumacher; Helbig/Schenkel)이 DaF-수업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결합가 사전에서는 상관사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다음 도표는 독일어 문법에 나타난 여러 학자들의 보충어 분류를 나타낸 도표이다(Engel³1994: 150). 이 논문에서는 Tarvainen(1985)의 보충어 분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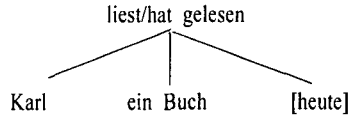
따라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Duden (¹ 1998)	Eisenberg (² 1989)	Helbig/Buscha (¹⁴ 1991)	Heringer (² 1973)	Grundzüge (² 1984)	Tarvainen (1985)	Engel(1988; ³ 1994)
주어	주어	주어	E ₁	주어	주어	E _{sub}
대격 목적어	대격목적어	대격 목적어	E ₄	E _{akk}	대격목적어	E _{akk}
속격 목적어	속격목적어	속격 목적어	E ₂	E _{gen}	속격목적어	E _{gen}
여격 목적어	여격목적어	여격 목적어	E ₃	E _{dat}	여격목적어	E _{dat}
전치사목적어	전치사목적어	전치사목적어	E ₅	E _{ppp}	전치사목적어	E _{ppp}
장소 보충어	부사보충어	부사규정어 (보충어 첨가어) ·시간장소방법원인		부사규정어	장소보충어	E _{sit}
시간 보충어					시간보충어	
원인 보충어					원인보충어	
			방법보충어			
						E _{dir}
						E _{exp}
술어적 주격 (대동주격)/ 술어적 대격 (대동대격)	술어명사		(E ₆)	술어보충어	술어보충어: 주격/목적격 술어보충어	E _{nom}
방법보충어						E _{adj}
					부정사목적어, 부문장목적어	E _{vb}

3. 의존문법의 몇 가지 문제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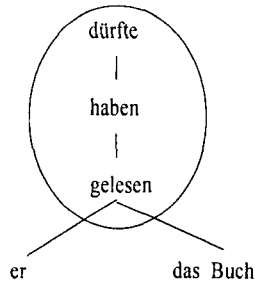
외국어 수업의 관점에서 독일의 의존문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중에서 몇 가지만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의존문법 이론은 동사가 문장의 구조적 중심으로서 작용한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한다. 동사가 그 결합가에 따라서 특정한 보충어를 요구하고 추가규정어로서 첨가어를 취한다.



수형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문장의 구조적 중심으로서의 동사는 단순히 정동사 하나로 구성될 수 있거나 혹은 정동사를 포함한 동사군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심”(=술어)이 하나의 어휘적(외연적)인 동사내용을 표현하며, 이 동사내용을 서법 Modus, 시제 Tempus, 동사태 Genus verbi의 관점에서 실현시킨다는 사실이다.(Tarvainen 1979: 3; 1981: 36) 그러면 복합술어는 “문장성분 내부” satzgliedintern의 결합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조화될 수 있다.

Er dürfte das Buch gelesen haben.



독일어 의존문법에서는 문장의 구조적 중심으로서의 동사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예컨대 Engel/Schumacher의 결합가 사전에서는 화법동사를 표제어로서 제시하지 않고 화법동사를 원칙적으로 “동사복합체” Verbalkomplex의 비자립적인 성분으로 간주하는 것은 DaF-수업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Engel 1982: 124; Engel/Savin(1983)의 독일어-루마니아어 결합가 사전에서는 화법동사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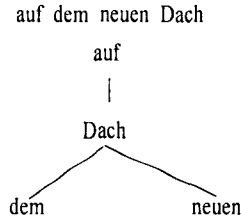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한국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다’는 것(예: *Ich will lesen.*)을 독일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동사를 독일어 *wollen*

으로 번역해야 한다. 이 *wollen* 동사는 고유한 의미(‘의지, 의도’)와 고유한 보충어를 갖는 하나의 동사이다. 이 동사는 그 의미에 따라서 문장의 동사적 중심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결합가 사전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예컨대 문장 *Er will da gewesen sein.* 안에 있는 *wollen*은 위 문장의 *wollen*과는 다르다. 이 *wollen*은 외연적인 의미보유어로서의 동사가 아니라 순수한 문법적인 양태기능을 갖는다(Tarvainen 1976: 19f.; 1981: 37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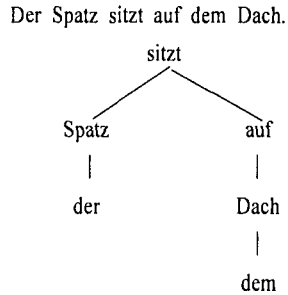
결합가 이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중의 하나는 비인칭 주어 *es*이다 (Tarvainen 1973: 26ff.). *Es regnet heute.*와 같은 문장 안에 있는 *es*는 일반적으로 동사(동사복합체)의 일부로 간주되지만, *Es klopft.*와 같은 문장 안에 있는 *es*는 동사의 보충어로 간주된다(Helbig/Schenkel 1980: 96; Engel/Schumacher 1978: 44f.). 이것은 두 번째 문장의 대명사 *es*는 명사로 대치될 수 있지만 (*Es/Das Mädchen klopft.*), 첫 번째 문장의 *es*는 명사로 대치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Es regnet.*라는 문장에서는 *es*에 대해 문장성분의 표지로 간주되는 어떤 계열소도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es*를 동사에 배열한다. 하지만 *es*는 예컨대 *Er steht auf.* 안에 있는 *auf*와 달리 *regnen*이라는 동사의 의미성분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es*가 특정한 경우에는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Gott lässt (es) regnen.* 그러나 *Er steht*와 *Er steht auf.*는 의미가 다르다). *es*는 통합소 *Es regnet.*의 통사적 성분이며 순수한 형식적 보충어, 즉 외계에서 어떤 대응물도 없는 하나의 형식적 문장성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때 *es*는 모든 경우에서 보충어이지 동사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구분기준은 성분들의 삭제 가능성(혹은 삭제 불가능성)이지, 대치 가능성이 아니다.”(Götze 1979: 128; Rall/Engel/Rall 1977: 81) 예컨대 날씨를 표현하는 비인칭 동사에서 자신의 모국어가 동사를 사용해야 하는 한국인에게는 독일어 *es*의 용법이 자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학습해야 하는 대상이다.

“문장성분 내부의 의존”(혹은 “문법적 의존”)이라는 명칭 하에 총괄되는 의존문법의 두 가지 개별 문제, 즉 전치사의 결합가와 관사의 종속을 살펴보자. 이 두 가지는 다시금 의존문법의 이론적인 문제점이며, 그 해결책은 특히 독일어를 배우는 한국인에게 중요하다.

Engel은 전치사에 대해서도 다른 품사에서와 유사한 결합가를 부여하며, 전치사구 안에 있는 전치사를 지배소로 간주한다. 명사는 자신의 의존소와 함께 이 지배소에 종속한다. 그래서 전치사구 *auf dem neuen Dach*의 의존도식은 다음과 같다(Engel 1982: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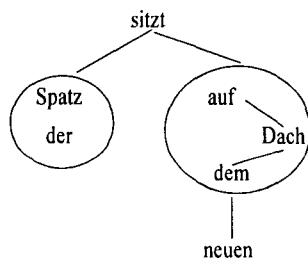


“우리가 이 그룹의 지배소에 대해 물어본다면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동사 *sitz*-(*Der Spatz sitzt auf dem Dach.*)는 전체 그룹을 소위 외부에서 지배하고, 전치사 *auf*는 그룹의 내부에서 최 상위 지배소이다”(Engel 1982: 104).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전치사가 결합가를 갖는다. 실제로 전치사는 항상 보충어를 필요로 하며 특정한 격 형태, 즉 *für* + 대격, *vor* + 여격 등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Engel(1982: 103)에 의하면 의존도식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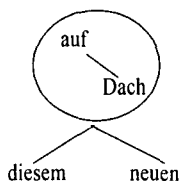
자신의 모국어가 전치사 대신에 격조사 *Kasuspartikel*를 사용하는 언어권(예: 한국어)의 독일어 학습자에게는 그 자체로 보면 논리적이고 좋은 이러한 체계가 어려움을 야기한다. 동사와 전치사에 대해 하나의 독립적인 교점을 가지고

있는 위의 수형도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동사(예: *sitzt*)와 전치사(예: *auf*)가 유사한 결합가를 갖는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동사는 개념적·지시적인 의미 보유어이고, 전치사는 한국어의 격조사에 해당하는 문법적 요소이다. 위의 수형도에서 전치사 *auf*에 대해 전치사구 *auf dem Dach* 내부에서만 지배소의 지위를 부여하고 — 즉 전체 수형도의 틀 내에 있는 교점이 아니라 — 이것을 “문장성분 내부” *satzgliedintern*의 결합가나 혹은 “문법적” 결합가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Tarvainen 1983: 114).



위의 수형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는 관사를 하나의 독립적인 의존소, 즉 형용사 *neuen*과 비교될 수 있는 하나의 첨가어로 보지 않고, 관사를 하나의 문법적 성분(문장성분 내부의 의존)으로서 단어 *Spatz*에 연결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에서는 그 대응물이 없는 관사가 다만 독일어 명사에 대한 문법적 표지에 지나지 않으며, *dieses*와 같은 첨가어와는 달리 문장성분의 정보에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는다. 통합소 *auf diesem neuen Dach*의 수형도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할 것이다.

auf diesem neuen Dach



“문장성분 내부의 의존”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예컨대 전치사 구조를 해당 격조사(한국어)와 비교하는 데 아주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독일어 관사의 통사적 지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대조기술의 토대로서의 의존문법

문장의 통사구조는 문장구성요소 Satzteil들의 관계와 어순 Wortstellung에 의해 결정된다. 이 두 가지는 독일어 대조 통사론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 세 번째 요소로서 통사구조의 고정에 기여하는 특정한 문장구성요소들의 형식적 일치 Kongruenz는 해당 문장성분(예: 술어)과의 연관성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문장구성요소들의 관점에서 문법을 분류해 보면 의존문법적으로 술어 Prädikat, 문장성분 Satzglied, 문장성분의 규정성분 Bestimmungsteil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문장성분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규정성분에서도 보충어와 첨가어의 구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순에 대한 장에서는 결합가가 특히 중장 Mittelfeld에 있는 요소들의 배열에 대한 기술에서는 중요하며, 주요 분류기준 으로서는 결합가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Tarvainen(1983: 115f.)은 독일어와 핀란드어에 대한 대조적인 의존통사론 kontrastive Dependenzsyntax의 주요한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분류를 토대로 하여 방대한 핀란드어-독일어 대조문법서(Tarvainen 1985)를 출간하였다.

I 문장구성요소

A. 문장의 주성분으로서의 술어

1. 인칭과 수 (일치)
2. 동사의 태 (능동과 수동)
3. 서법과 시제
4. 부정어

B. 술어에서의 문장성분

1. 술어의 결합가에 접속된 보충어
 - 1.1. 주어
 - 1.2. 목적어
 - 1.3. 부사보충어
 - 1.4. 술어보충어
2. 술어에서의 임의첨가어

- 2.1. 부사첨가어 2.2. 술어첨가어
- 3. 술어에서 목적어가 아닌 여격
 - 3.1. 관심의 여격 3.2. 이익의 여격 3.3. 손해의 여격
- C. 문장성분의 규정성분
 - 1. 술어적 형용사의 보충어 2. 부정사와 분사의 규정어
 - 3. 독일어 소유의 여격 4. 부가어
 - 4.1. 명사의 부가어
 - 4.1.1. 결합가에 결속된 부가어 4.1.2. 부가적 첨가어
 - 4.2. 형용사와 부사의 부가어

II 어순

- 1. 동사의 어순
 - 1.1. 정형동사의 어순 1.2. 부정형동사와 동사첨부어의 어순
- 2. 비 동사적 문장성분의 어순
 - 2.1. 증장 2.2. 전장 2.3. 후장
- 3. 부가어의 어순

여기서 약술된 핀란드어-독일어의 대조통사론은 두 언어의 차이점뿐 아니라 공통점도 다루는 양면적인 대조문법이다. 비교점 *Tertium comparationis* (“das Gemeinte 의미내용”)이 의미적으로 명확히 정의될 수 있고 또한 구분될 수 있다면, 해당 의미내용에 대한 두 언어의 표현수단이 다 같이 다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시제에서 시제내용(“현재”, “과거”, “미래”)과 서법에서 서법내용(“현실”, “신중한 유보”, “비현실”, “추측”, “주장과 의견”)이 비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부사규정어에서도 그 내용(“장소”, “시간”, “방법”, “원인”)이 비교의 토대로서 사용될 수 있다.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 *Inhalt*이 존재하지 않으면 형태 *Form*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컨대 주어, 목적어 및 술어보충어에서는 형태에서 출발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심층격 *Tiefenkasus*에서 출발한다면, 예컨대 목적어의 종류를 여러 가지 심층격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실용적인 반복이 될 것이다. 대격 목적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심층격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Ich esse <i>Fleisch</i> .	(대상격, Objektiv)
<i>Mich</i> friert.	(피동격, Patiens)
Die Armee bekämpfte <i>den Feind</i> .	(목적격, Ziel)
Wir erörtern <i>die Frage</i> .	(주제격, Thema)
Sie bewohnt <i>ein altes Haus</i> .	(장소격, Ort)
Sie verbrachte dort <i>zwei Tage</i> .	(시간격, Z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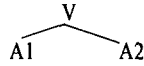
심층격이 오늘날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심층격은 “너무 심층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조문법을 위한 명확한 비교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심층격이 형식적인 문장성분을 내용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다(Tarvainen 1979: 80,94f.).

위에서 약술한 대조통사론 모형에서는 문장구성요소들과 형태론적 형식들이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를 형성한다. 즉 형태는 해당 문장성분 혹은 규정성분에서만 다루어진다. 우선 두 언어의 문장구성요소들(문장성분과 규정성분)이 간단히 다루어지고 체계의 근본적인 차이점과 관련하여 상호 비교되는 하나의 모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언어형태는 그들의 상이한 통사적 기능에서 체계적으로 기술되며, 이 때 두 번째 언어의 대응물이 제시된다. 두 번째 언어의 형태(형태범주)는 첫 번째 언어 범주의 대응물로서만 다루어지지, 하나의 통일적인 형태론적 체계로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Vgl. Tarvainen 1985).

5. 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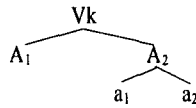
결합가를 토대로 하여 문장에서 여러 가지 통사적 기본 구조, 소위 문형 Satzmodell을 구분할 수 있다. 주문형 Hauptmodell은 동사와 그 보충어로 구성되며, 부문형 Nebenmodell에서는 형용사 결합가가 토대가 된다. 완전동사 Vollverb를 V, 연사동사를 V_k, 동사의 보충어를 A, 형용사의 보충어를 a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문형을 얻게 된다(Tarvainen 1981: 102ff.).

주문형 혹은 동사적 문형



Mein Freund wartet auf mich.
 A₁ A₂
 (Sn) (pS)

부문형 또는 형용사적 문형



Mein Freund ist mir für das Geschenk dankbar.
 A₁ a₁ a₂ A₂
 (Sn) (Sd) (pS) (Adj)

문형은 구체적인 문장의 많은 표지가 빠져 있는 비교적 추상적인 구조이다. 즉, 문형은 문장 종류(서술문, 의문문 등), 어순, 동사의 활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동사와 형용사의 임의첨가어도 역시 문형과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문형에 대한 예문은 소위 기본형 *primäre Form*으로 제시된다. 즉, 문장은 그 술어가 현재·직설법·능동형으로 되어 있는 서술문 *Aussagesatz*이다. 우리는 동사적 문형과 형용사적 문형을 분리하여 다룰 것이다.

5.1. 동사적 문형

동사적 문형은 순수 결합가 모형 *Valenzmodell*과 문장성분 모형 *Satzgliedmodell*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결합가 모형에서는 동사가 몇 개의 보충어를 취하며, 이들 중 어느 보충어가 의무적이고 그리고 어느 보충어가 수의적인가 하는 것이 기호로써 제시된다. 이와 같은 양적인 문형으로부터 문형의 질적인 실현이나 혹은 문형의 상이한 언어 형태가 제시될 수 있다. 문장성분 모형에서는 보충어가 문장성분에 따라서 특정한 그룹으로 총괄되어 있다.

1. 결합가 모형들 *Valenzmodelle*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은 보충어가 그 자신의 고유한 개념적 내용을 갖는 소위 정상적인 결합가 모형이다. 양적인 문형에서는 결합가가 0가에서 4가까지 변할 수 있는 동사들이 등장한다(수의적

보충어는 괄호로 표시된다).(Tarvainen 1981:103f.)

A ₁ - V	Karl arbeitet.
A ₁ - V - A ₂	Berlin liegt an der Spree.
A ₁ - V - (A ₂)	Die Mutter bäckt (den Kuchen).
A ₁ - V - A ₂ - A ₃	Die Mutter gewöhnt die Kinder an Sauberkeit.
A ₁ - V - A ₂ - (A ₃)	Die Lehrer verteilt die Hefte (an die Schüler).
A ₁ - V - (A ₂) - (A ₃)	Der Lehrer dankt (dem Schüler) (für die Hilfe).
A ₁ - V - A ₂ - (A ₃) - (A ₄)	Der Schüler entgegnete (dem Lehrer) (auf dessen Frage), dass er aufgepasst habe.
A ₁ - V - (A ₂) - (A ₃) - (A ₄)	Der Schüler antwortete (dem Lehrer) (auf dessen Frage), (dass er aufgepasst habe).
	Der Schriftsteller übersetzt (das Buch) (aus dem Koreanischen) (ins Deutsche).

Tarvainen에 따르면 독일어에서는 통사적으로 0가 동사가 없다. 동사가 정상적인 보충어를 취하지 않으면, 동사는 순수 형식적인 보충어와 결합된다. 독일어의 4가 동사들 중에서 예컨대 *entgegenen*은 의무적으로는 2가이고 수의적으로는 4가이다. 일반적으로 4가 동사는 아주 드물다. 0가에서 3가까지의 보충어를 포함하는 문형이 일반적이다.

모든 양적인 문형은 보충어의 문법적 형태에 따라서 질적인 하위문형으로 세분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서 독일어 문형 A₁ - V - (A₂)를 살펴보자.

Sn, (Sa)	Die Mutter kauft (Milch) ein.
Sn, (Sd)	Das Kind folgt (seiner Mutter).
Sn, (pSa)	Der Arzt steigt (in die Straßenbahn) ein.
Sn, (pSd)	Die Schneiderin arbeitet (an einem Kleid).
Sn, (NS)	Das Kind wartet ab(, ob jemand kommt).
Sn, (Inf _{zu})	Er weigert sich(, das Vorhaben zu unterstützen).
Sn, (Inf)	Die Mitarbeiterin hilft (schreiben).
Sd, (pS)	Ihm graut (vor dem Krankenhaus).

일반적으로 여러 언어들에서 양적인 문형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여러 가지 양적인 문형들의 질적인 실현은 언어마다 서로 다른데, 이는 여러 언어들이 상이한 문법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상이한 형태들이 고려된다면 한 언어의 질적인 문형의 수는 매우 많아질 것이다. 독일어에서는 대략 100개의 질적인 문형들이 구분된다.

2. 문장성분 모형 Satzgliedmodell은 결합가에 결속된 보충어의 여러 가지 질적인 형태들이 몇 가지 문장성분, 즉 주어, 목적어, 부사보충어, 술어보충어로 총괄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 문장성분들 중에서 목적어는 각각의 동사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형태에 따른 하위부류로 세분될 수 있다. 목적어가 통사범주인 반면에, 부사보충어는 내용적인 하위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내용범주이다. 술어보충어는 명사적 술어보충어와 형용사적 술어보충어로 나눌 수 있다. 문장성분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무적 보충어와 수의적 보충어가 구분되지 않는다. 더욱이 명사적 문장성분을 대신 하는 부정사와 부문장을 따로 분리하여 고려하지는 않는다.

위의 기준에 따라서 독일어의 문장성분 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Tarvainen 1981: 108f).

주어 + 술어 :	Karl arbeitet.
목적어 + 술어 :	Mich schläfert.
주어 + 술어 + 목적어	
대격 :	Ich schreibe einen Brief.
여격 :	Ich helfe meinem Bruder.
속격 :	Wir gedachten des Verstorbenen.
전치사격 :	Ich dachte an meine Mutter.
zu 없는 부정사 :	Karl kann sprechen.
zu 있는 부정사 :	Karl weigert sich zu kommen.
주어 + 술어 + 술어보충어 :	
명사적 보충어 :	Karl ist ein Mann.
형용사적 보충어 :	Karl ist jung.
주어 + 술어 + 부사보충어 :	

장소보충어 : Karl wohnt in Berlin.
 시간보충어 : Die Sitzung dauert lange.
 방법보충어 : Karl benimmt sich schlecht.
 이유보충어 : Er geht fischen.

주어 + 술어 + 두 개의 목적어 :

대격 + 대격 : Er lehrte mich Französisch.
 대격 + 여격 : Er berichtet mir den Vorgang.
 대격 + 속격 : Der Herr beschuldigt seinen Diener des Diebstahls.
 대격 + 전치사격 : Deine Bemerkung erinnert mich an ein Erlebnis.
 여격 + 전치사격 : Ich danke dir für deine Hilfe.
 전치사격+전치사격 : Sie sprachen zu uns von neuen Erfolgen.

주어 + 술어 + 세 개의 목적어 :

대격 + 여격 + 전치사격: Der Lehrer antwortet mir nichts auf meine Frage.
 대격+전치사격+전치사격: Der Mann übersetzt das Buch aus dem Deutschen ins Koreanische.

주어 + 술어 + 목적어 + 부사보충어 : Karl legt das Buch/Bücher auf den Tisch.

주어 + 술어 + 목적어 + 술어보충어 : Karl nennt mich einen Faulenzer/faul.

문장성분 모형은 독일어와 그리고 많은 다른 언어들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의 형태에 따른 하위문형, 특히 목적어에서는 차이점이 나타난다. 독일어에서는 격 목적어와 전치사 목적어가 등장한다. 영어와 프랑스어에서는 명사의 경우 소위 기본형인 단지 하나의 격 목적어(*I love the girl.* - *J'aime la jeune fille.*)와 다수의 전치사 목적어가 있다.

5.2. 형용사적 문형

형용사적 문형에서는 연사동사(V_k)가 술어로 사용되며 원래의 의미 보유어는 형용사적 술어보충어이다. 이러한 문형에서 등장하는 형용사의 결합가는 0

에서 3가지 변화한다. 형용사의 보충어(=a)는 목적어나 부사보충어이다. 독일어에서는 형용사적 문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Tarvainen 1981: 100f.)

$A_1 - V_k - A_2$: 주어 + 술어 + 술어보충어(0가) : Der Mann ist kalt.

$A_1 - V_k - A_2$: 주어 + 술어 + 술어보충어(1가)



a=목적어 :

여격 : Ich bin diesem Mann fremd.

속격 : Er ist des Diebstahls schuldig.

대격 : Ich bin alle Sorgen los.

전치사격 : Er ist an dem Mädchen interessiert.

부정사 : Ich bin fähig, das zu tun.

$A_1 - V_k - A_2$: 주어 + 술어 + 술어보충어(2가)



a=목적어:

여격+전치사격: Ich bin dem Freund für die Hilfe dankbar.

여격 + 대격 : Er ist dem Wirt zwei Mark schuldig.

여격(재귀대명사)+속격: Ich bin mir keiner Schuld bewusst.

$A_1 - V_k - A_2$: 주어 + 술어 + 술어보충어(3가)



a=목적어:

전치사 + 전치사 + 여격(재귀대명사): Er ist sich mit dem Vertragspartner über die Bestimmung einig.

형용사의 보충어로서 부사보충어를 취하는 문형은 아주 드물다. 형용사의 목적어에서는 독일어의 경우 다만 몇 개의 격과 많은 전치사들이 등장한다. 영어에서는 단지 하나의 격 목적어만 존재하는데, 이 격 목적어도 드물게 나타난다(The car is worth a thousand pounds.). 일반적으로 영어의 형용사 보충어는 전치사 구조이다(She is interested in languages.). 3가 형용사는 아주 드물다. 독일어의 재귀대명사가 세 번째 보충어로서 사용될 수 있다(sich mit dem Vertragspartner über die Bestimmungen einig).

6. 결론

이 논문에서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의존문법 학자인 Tarvainen의 의존문법 사상을 대조문법적인 관점에서 분석·검토하여 의존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DaF-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Tarvainen의 동사 문형과 형용사 문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Tesnière, Helbig, Engel, Fillmore 등의 이론을 종합하여 대조적인 새로운 의존문법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독일어와 핀란드에 관한 방대한 대조문법서를 저술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의존문법의 기술방법을 우리 국어에 적용시켜, 국어의 통사구조를 의존문법 이론으로 기술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충어의 분류와 문형은 DaF-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독일어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DaF-수업에서 의존문법을 두 언어의 비교에 대한 기술모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문법이론에 비해 의존문법은 단순하고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DaF-수업에서 가장 적합한 이론이다. 의존문법은 독일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어려운 독일어 문법과 어휘를 습득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법이론이다. 독일어를 배우는 한국인은 동사와 그것의 통사·의미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많은 과오를 저지른다. 동사 결합가와 관련하여 두 언어 간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 및 외국어로서 먼저 배운 영어에서 오는 간섭현상 *Interferenz*도 과오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한국어와 독일어의 보다 나은 이해와 DaF-수업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독일어 동사의 보충어와 문형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동사의 보충어와 문형을 정립하며 더 나아가 한·독 동사 결합가 대조사전을 편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Engel, U. (²1982; ³1994): *Syntax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Berlin.
 (이점출(2002)(역): 현대 독일어 통사론. 한국문화사).
 Engel, U/Isbacescu, M. (1993): *Kontrastive Grammatik deutsch-rumänisch*. 2

- Bände*, Heidelberg.
- Engel, U./Mikic, P. (1983): Valenz im Deutschen und im Serbokroatischen. Ein Vorschlag für kontrastive Beschreibung. (=Deutsch im Kontrast, Band 2). Heidelberg, 197-255.
- Engel, U./Mrazovic, P. et al. (1986): *Kontrastive Grammatik Deutsch-Serbokroatisch*. 2 Bände. München.
- Engel, U./Savin, E. et al. (1983): *Valenzlexikon deutsch-rumänisch*, (=Deutsch im Kontrast. Band 3). Heidelberg.
- Engel, U./Schumacher, H. (¹1976; ²1978): *Kleines Valenzlexikon deutscher Verben*. *Forschungsberichte des Instituts für deutsche Sprache* 31. Tübingen.
- Götze, L. (1979): *Valenzstrukturen deutscher Verben und Adjektive. Eine didaktische Darstellung*. *Heutiges Deutsch III/3*. München.
- Helbig, G./Schenkel, W. (¹1969; ⁵1980): *Wörterbuch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utscher Verben*. Leipzig.
- Rall, M./Engel, U./Rall, D. (¹1977; ²1985): *DVG für DaF. Dependenz-Verb-Grammatik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Heidelberg.
- Sommerfeldt, K.-E./Schreiber, H. (1974): *Wörterbuch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utscher Adjektive*. Leipzig.
- Sommerfeldt, K.-E./Schreiber, H. (1977): *Wörterbuch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r Substantive*. Leipzig.
- Schumacher, E. (1986): *Verben in Feldern*. Berlin.
- Stanescu, S. (1988): Bemerkungen zur kontrastiven Beschreibung der Verbvalenz im Deutschen und Rumänischen. In: *Festschrift für Ulrich Engel zum 60. Geburtstag*. Heidelberg, 367-379.
- Tarvainen, K. (1973): Zur Valenztheorie und ihrer praktischen Anwendung im Valenzwörterbuch von Helbig/Schenkel. In: *Neuphilologische Mitteilungen* 1, 9-49.
- Tarvainen, K. (1976): Die Modalverben im deutschen Modus- und Tempussystem. In: *Neuphilologische Mitteilungen* 1, 9-24.
- Tarvainen, K. (1979): *Dependenzuelle Satzgliedsyntax des Deutschen. Mit sprachgeschichtlichen Erläuterungen*. *Veröffentlichungen des Instituts für germanistische Philologie der Universität Oulu* 3. Oulu.
- Tarvainen, K. (1981): *Einführung in die Dependenzgrammatik*. Tübingen. (이점출 (2003)(역): 의존문법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 Tarvainen, K. (1983): Zum syntaktischen Objekt im Deutschen und seinem tiefenstrukturellen Inhalt. In: *Linguistische Studien 107, I*, 63-83.
- Tarvainen, K. (1983): Zur Eignung der Dependenzgrammatik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aus kontrastiver Sicht. In: *Jahrbuch der Deutsch als Fremdsprache 9*, 105-118.
- Tarvainen, K. (1985): *Kontrastive Syntax Deutsch-Finnisch*. Heidelberg.
- Tarvainen, K. (1986): *Deutsche Satzstruktur und ihre Entwicklung. Dependenzgrammatik des deutschen mit historischen Erläuterungen*. Jvaskylä. (이점출(2001)(역): 독일어 의존통사론. 한국문화사)

Zusammenfassung

Zur Anwendbarkeit der Dependenzgrammatik im DaF-Unterricht

– In Bezug auf die Valenzkonzepte von *Kalevi Tarvainen* –

Rhie, Jum-Chool(Chung-Ang Univ.)

Das Ziel dieses Aufsatzes liegt darin, die Valenzkonzepte und Satzmodelle von *Kalevi Tarvainen* zusammenzustellen, und auf die dependenzielle kontrastive Beschreibung des Deutschen und der Muttersprache des Deutschlernenden einzugehen, und ihre Prinzipien und Probleme kurz zu betrachten.

Prinzipiell eignet sich die Dependenzgrammatik ebenso gut für den muttersprachlichen Unterricht des Deutschen wie für den Unterricht des Deutschen als Fremdsprache. Die Grundkategorien der Dependenzgrammatik, d.h. die hierarchische Dependenzbeschreibung mit dem Verb als Ausgangspunkt, die Valenz, die Ergänzungs- und Angabestruktur des Satzes, sind an sich für den Fremdspracheunterricht gut verwendbar. Ausländische Deutschlernende haben als Ausgangssprache ihre eigene Sprache, für deren Beschreibung sich die für die Zielsprache verwendete Grammatiktheorie auch eignen muss. Überdies muss für alle Fremdsprachen, die ein Schüler lernt, dieselbe Grammatiktheorie verwendbar sein. Die Dependenzgrammatik hat gute Voraussetzungen, zu einer allgemeinen Theorie für den Fremdsprachenunterricht zu werden. Beim Vergleich der Sprachen muss man als *Tertium comparationis* vom "Gemeintem" ausgehen. Wenn die deutlich definierbaren Inhalte nicht vorhanden sind, muss man von den Formen ausgehen. Beim Erlernen der deutschen Sätze können die Grundkategorien der Dependenzgrammatik, die Klassifizierung der Ergänzungen

260 독어학 제9집

und die Satzmodelle des deutschen Verbs und Adjektivs dem Deutschlernenden große Hilfe leisten.

[검색어] 의존문법, 보충어, 대조통사론, 문형, 결합가 모형
Dependenzgrammatik, Ergänzung, kontrastive Syntax,
Satzmodell, Valenzmodell

이접출

456-75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중앙대 독어학과
valenz@hanmail.net